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와 타국인의 제사 참여에 관한 전통사적 연구

이효림(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은 후에 시나산에서 출발하였지만, 곧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땅 수여’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의문에 처하게 되었다(민 11:11-15). 민수기 13-14장은 몇 개의 예증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백성의 소원(민 14:3f.)과 전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위협의 말씀(민 14:11f.)은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발생한 최고조의 갈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 이러한 파국적 상황은 현재 시나산에 있는 백성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1 D. T. Olson,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 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 Brown Judaistic Studies 71 (Brown University, 1985), 171f; J.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117; P. J. Budd, *Numbers. WBC 5*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167f, 173f.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완전히 끝이 난다(민 14:30). 이러한 세대 단절의 선포 다음에 등장하는 민수기 15장은 시내산 이후 세대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율법 규정들이다. 이 첫 번째 율법 규정들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사건과 곧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일 모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²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제멋대로 시도했다는 보도(민 14:39-45)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명백한 진술(민 15:2)은 야웨가 유일한 땅 수여자라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율법의 규정들은 땅을 경작하는 내용을 취급함으로 다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³ 즉 민수기 15장의 율법 규정들에 따르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야웨가 행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야웨의 돌봄은 특히 민수기 15장 안에서 다섯 번에 걸쳐 언급된 “대대로”라는 단어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14, 15, 21, 23, 38절).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의 신학적 강조점이다.⁴

민수기 15장은 야웨에게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물에 대한 제사-의식적인 규정을 진술하고 있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배열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민수기 15장이 제사장 문서(P) 초기 편집 이후에 현재의 위치로 첨가되었다

2 G. J. Wehham, *Numbers* (London: Tyndale Press, 1982), 126.

3 H. Seebass, *Numeri*, BK IV 2/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137.

4 D. T. Olson, *Death*, 35; 김재구, “민수기의 거시구조에 대한 재조명”,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41-73; 우택주,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164-194.

는 사실에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⁵ 민수기 15장은 포로 후기 P문서 편집자의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문은 동물의 규모에 따라 제사 비율의 등급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후대의 발전된 내용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타국인을 포함한 제사 규모의 중요한 확대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본문은 제사와 관련된 전형적인 표현을 간직한 채 제의 상황의 예들을 설명문체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민수기 15장은 네 개의 주제를 취급하고 있다: 1) 동물 희생 제사를 동반한 소제와 전제(1-16절), 2)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으로 드리는 거제와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인한 범죄로 인해 드리는 속죄제(17-31절), 3) 안식일에 노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예(32-36절), 4)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만드는 옷단 귀에 다는 술(37-41절). 각 단락은 야웨가 모세를 통해 제사 규정을 전달한다는 정형화된 위임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독점적인 중재자로 모세가 선택된 상황이 철저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1, 17, 35, 37절).⁷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삶의 장소 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과 관련된 입법상의 규정들이 뒤따르고 있다.

5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Reimer, 1889), 177-178; A. Kuenen, *A Historico-Critical Enquiry into the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Hexateuch*, P. H. Wickstead(trans.), (London: Macmillan, 1886), 96; J. B.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168-169; M.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B. W. Anderson and Englewood Cliffs(trans.), (NJ: Prentice-Hall, 1972), 9; J. Sturdy, *Numbers*. CBC/NE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108; G. B. Gray, *Numbers* (London: T&T Clark, 1912), 170.

6 P. Grelot, "La Dernière Étape de la Rédaction Sacerdotale", *VT* 6 (1956), 174-189.

7 1, 17, 37절은 각 단락의 처음 위치에서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반면 35절은 세 번째 단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약간 축약된 문장을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וַיִּאמֶר יְהוָה אֶל־מֹשֶׁה).

본 논문은 동물 희생 제사를 동반하는 소제와 전제에 관한 새로운 율법 규정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제사 본문들의 전통사적 연구⁸와 함께 포로 후기에 ‘타국인’(גֵּרִים)을 율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한 신학적 배경과 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물 희생 제사를 동반하는 소제와 전제

1) 연구를 위한 난제들

민수기 15장 1-16절은 여러 종류의 동물 희생 제사에 따른 소제와 전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취급하고 있다. 동물 희생 제사를 동반한 여러 종류의 제사는 서로 다른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의 분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량들은 드러진 다양한 동물의 종류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제물의 비율은 짐승의 크기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등급이 매겨져 있고, 제사의 과정과 절차는 일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본문은 제물의 분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소제와 전제의 분량은 해당 제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드러지는 짐승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요구되고 있는 소제와 전제의 분량의 특징은 제사 동물의 가치(소/양-숫양-수송아지)에 따라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나 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아마도 당시의 주요 곡식이었던 밀 혹은 보리) 에바 1/10에 (올리브)기름 1/4 힌을 섞어 소제로 드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8 '전통사적 연구'란 신학적이고 종교사적이고 정신사적인 역사를 통해 형성된 확정되고 각인된 단어들, 중심개념들, 그리고 모티브의 특징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킨다: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 128.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1/4 힌을 준비해야 한다(3-5절).⁹ 숫양의 경우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2/10에 기름 1/3 힌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1/3 힌을 드려야 한다(6-7절). 그리고 번제나 서원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위해서는 소제로 고운 가루 3/10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어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야 한다(8-10절). 수송아지, 숫양, 어린 숫양, 어린 염소의 경우 그 마리 수마다 위 내용과 같이 행해져야 하며(10-11절),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타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13-16절).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1-2절 서론: 조건적인 상황진술
- 3-5절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에서의 소제와 전제
- 6-7절 숫양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에서의 소제와 전제
- 8-10절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에서의 소제와 전제
- 11-12절 여러 종류의 동물 제사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
- 13-16절 결론: 내국인과 타국인에 동일한 규례

이 논문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동물 희생 제사를 동반한 소제와 전제 규정에 관한 옛 율법을 찾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율법에 테두리를 입히고 곳곳에 필요한 보충적 손질을 가한 편집자의 작업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하지만 두 층 사이의 정확한 구분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왜냐하면 “현재 모습의 단락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매우 느슨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내용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 개의 제사 의식적 규정들은 어떤 조직적인 체계 없이 결합되어 있고, 연

9 정중호, 『민수기 II』, 한국구약학총서 5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59.

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⁰ 1-2절과 13-16절은 단락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수취인은 2인칭 복수형(너희는)으로 소개되고 있는데(2b절), 분명히 편집자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편집자는 단락의 도입부(1-2a절)를 작성하여 앞에 위치시키고, 1-16절을 현재의 위치에 끼워 넣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편집자에게 전달된 전승 자료의 전(前) 역사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율법의 옛 규정들이 편집자에 의해 손질되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역사적 발전모형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¹¹

2) 본문의 전통사적 연구

민수기 15장 1-16절의 규정들은 레위기 1-7장¹²에 위치한 일련의 제물 규정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전자의 규정들은 레위기 2장과는 달리 동물 제사를 동반한 소제와 전제를 다루고 있다. 레위기 2장에 따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에는 곡식 제물로 드리는 소제나 부어 드리는 제물인 전제가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 레위기 2장은 배타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다.¹³ 그런데 민수기 15장 1-16절의 주요 관심은 숫양, 어린 숫양, 수송아지, 어린 염소로 화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동물 희생

10 M. Noth, *Das 4. Buch Mose. Numeri*, 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102.

11 P. J. Budd, *Numbers*, 167.

12 M. Noth, *Das 3. Buch Mose. Leviticus*, A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9.

13 레위기 2장에 등장하는 짧은 문장들, 비인칭적 3인칭의 문장형태, 요리방법의 단순성, 그리고 오래된 단어 ‘손으로 움켜지다’(יָרָקָה)의 사용은 레위기 2장의 연대가 아주 이른 시기로 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 Koch, *Die Priesterschrift von Exodus 25 bis Leviticus 16: Eine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und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FRLANT 7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49-50.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매번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하며, 내국인과 타국인도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

(1) 소제와 전제

매일 드리거나 특별한 축제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민수기 28-29장은 주로 동물 제사(대부분 번제, עֹלָה)¹⁴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소제(קָרְבַּן)나 전제(קָדֹשׁ)는 주변적인 관심을 보일 뿐이다. 소제와 전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9가지의 제사 중에서 철저히 동물을 잡아 드리는 번제의 보충적인 제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소제와 전제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인칭어미는 동물 제사가 주된 제물이고, 소제와 전제는 철저히 동물 제사에 종속되어 있는 부가적인 제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민 28:20, 28, 31; 29:3, 6, 9, 11, 14, 16, 18f., 21f., 24f., 27f., 30f., 33f., 37-39). 렌도르프(R. Rendtorff)는 그러한 배경에는 이미 소제와 전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충적인 제사로 실행되었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측하였다.¹⁶ 종교사적으로 볼 때도 소제와 전제가 독립적인 제사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철저히 어떤 상징적 기능을 지니고 주요 제사 이전에 드려지는 제사이든지 주요 제사에 종속적 의미를 지닌 부차

14 A. Hultgard, "The Burnt-Offering in Early Jewish Religion: Sources, Practice and Purpose", T. Linders and G. Nordquist(ed.), *Gifts to the Gods: Proceedings of the Uppsala Symposium 1985*,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Boreas, Uppsala Studies in Ancient Mediterranean and Near Eastern Civilizations 15 (Uppsala: Academiae Upsaliensis, 1987), 133-136.

15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민 28:5, 8), 안식일 제사(민 28:9), 초하루 제사(민 28:11-15), 유월절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민 28:20, 24), 칠칠절기에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민 28:28, 31), 신년에 드리는 제사(민 29:3, 6), 그리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민 29:9, 11), 장막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민 29:16, 18, 19, 21f., 24f., 27f., 30f., 33f., 37f.).

16 R. Rendtorff, *Studien zur Geschichte des Opfers im Alten Israel*, WMANT 2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7), 169; C. Dohmen, Art. "קָדֹשׁ", *ThWAT* 5 (1986), 488-493.

적인 제사일 뿐이다. 소제와 전제는 분명히 동물 희생 제사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의 제사이다(민 29:6). 장막절에 매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 소제와 전제에 대한 자세한 분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민 29:12-40). 소제와 전제를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민 29:18, 21, 24, 27, 30, 33, 37)라는 관용적인 문장이 반복적으로 관련되고 있는데, 이 문장은 동물 제사가 주요 제사이며 소제와 전제는 보충 제사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민수기 28-29장과 민수기 15장 1-16절에서 소제와 전제의 분량에 대한 규정은 일치하고 있다. 처음 언급된 구절의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민 28:5)는 기름의 분량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반면, 나머지 구절은 단순히 “기름 섞은”(민 28:9, 12f., 20, 28; 29:3, 9, 14)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듯 ‘소제’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광범위한 의미론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 엄밀한 의미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식물성 제물을 위한 전문용어(technical term)에 속하는 ‘소제’(קָרְבָּן)의 어원학적 연구는 매우 논란이 많은데,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명사 형태로 자주 등장하므로 명사가 단어의 근본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¹⁷ 먼저 제의적으로 살펴볼 때, ‘소제’는 일반적으로 제의자의 생명에 대한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일종의 제한적 의미의 곡식 제사(대상 23:29; 느 10:33)이다.¹⁸ 모든 소제물에 누룩(כֶּמֶץ)과 꿀(שֶׁמֶן)¹⁹은 금지되었다. 누룩과 꿀이 소제에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구약성서에는 특별하게 언급

17 H. -J. Fabry and M. Weinfeld, Art. “קָרְבָּן”, *ThWAT* 4 (1984), 987-1001.

18 J.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29.

19 벌꿀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사기 14장 8-9절을 제외하면 구약성서에서 꿀의 종류가 소개된 곳은 없다. 대추야자 열매나 여러 종류의 과일로 만든 즙을 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A. Caquot, “שֶׁמֶן, d’bhash”, *IDOT* 3, 128-131은 꿀을 달콤한 물질(sweet substance)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누룩과 꿀은 발효가 되는 특징이 있어 곡물의 기본적인 상태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제’가 ‘희생제사(חֲזָקָה)’로 야웨에게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를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소제’와 ‘희생제사’를 각각 ‘곡식 제물’과 ‘동물 제물’로 간주하기보다도 ‘소제’는 ‘번제’를 대신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²⁰ 그렇다면, ‘소제’는 야웨에게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의미이고, ‘희생제사’는 공동식사를 위한 제물이 된다. 더 나아가 ‘소제’는 비제의적인 영역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속적인 영역 중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약소국이 강국에 바치는 ‘공물’(貢物, 사 3:15, 17f.) 내지는 ‘조공’(朝貢, 삼하 8:2, 6; 왕상 4:21; 왕하 17:3, 4)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제’는 타인에 대한 친밀함과 존경과 호의, 내지는 윗사람에 대한 충성의 의미에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였다.²¹ 어떤 경우 ‘소제’는 분명히 세속적인 언어사용을 연상케 하면서 왕 내지는 야웨에게 드리는 경의의 선물을 의미하기도 한다.²²

제사장 문헌이 아닌 곳에서도 소제와 전제가 동시에 언급되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에 따라 지은 새로운 성전에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는 제사를 드렸다(왕하 16:10-18). 왕은 제사장 우리야에게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15절)²³고 명

20 R. Rendtorff, *Studien*, 191-192. 삼상 2:29; 3:14; 시 40:6; 사 19:21; 단 9:27; 암 5:25.

21 이희학, 『구약성서와 조상숭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182-185.

22 R. Rendtorff, *Leviticus*, BK 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2), 87.

23 Th. C. Vriezen, “The Term *Hizza*: Lustration and Consecration”, *OTS* 7 (1950), 201-235;

령한다. 이 구절에서 제사장적 제물 규칙에 따른 ‘번제물과 소제물’ 내지는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 사이의 밀접성을 인지할 수 있다. 요엘 1장 9, 13절과 2장 14절에서는 소제와 전제가 제단에 드리는 제물들을 총괄하는 ‘본질적 개념’²⁴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소제와 전제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당시 백성의 결정적인 죄악으로 지적되었다. 이사야 57장 6절에서는 서로 뒤바뀐 순서로 언급된 ‘전제와 소제’가 이방 신들에게 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P문서와 관련이 없는 문헌에서는 소제를 동반하지 않고 오직 전제만 언급된 구절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웨에게 범죄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구절과 관련되고 있다.²⁵ 특히 예레미야 예언에서 전제는 바알, 하늘의 여왕(이쉬타르/아낏)과 하늘의 군대(렘 7:18; 19:13; 32:29; 44:17-19, 25)를 숭배한다는 구절에 등장하고 있다. 신명기사가적 편집을 거친 이 구절들은 포로기의 불법적인 제물과 관련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경건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²⁶ 시편 16편 4절 역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에 대한 논쟁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시인은 ‘피의 전제’를 드리는 행위를 불신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⁷ 역대기사가는 번제에 대한 보충 제사로 소제만을 소개하고 있지만(대상 21:23; 대하 7:7), 역대상 29장 21절과 역대하 29장

J. de Vaulx, *Les Nombres*. CBC/NEB (Paris: J. Gabalda, 1972), 179-180; D. J. McCarthy, "The Symbolism of Blood and Sacrifice", *JBL* 88 (1969), 166-176.

24 R. Rendtorff, *Studien*, 171.

25 "...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겔 20:28)."

26 하늘의 여왕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리는 행위(렘 7:18; 44:19), 지붕 위에서 바알이나 하늘의 만상(萬象)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는 행위(렘 19:13; 32:29; 44:17f., 25)

27 H. -J. Kraus, *Psalmen. 1 Teilband: Psalmen 1-59*. BK 15/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264f.

35절에서는 놀랍게도 번제가 단지 전제만을 동반하고 있고 소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포로 후기에 실제로 어떤 제의적 관습이 실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창세기 35장 14절은 야곱이 벵엘에서 세운 돌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성소에서의 제사 행위의 시작을 선전하기 위해 옛 자료에 대한 후대의 편집적인 삽입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²⁸

(2) 화제

민수기 15장 1-16절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동반하고 있는 ‘소제와 전제’는 ‘번제와 희생 제사’라는 두 개의 전문적인 제사 개념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화제’(חֹטֵאת־הַחֵטִיִּת הַשְּׂמֶנֶה, 민 15:13, 14)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히브리어 ‘잇쉐’(hVea)가 ‘불’(vae)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확신하였고, 그런 이유로 ‘화제’로 번역하였다.²⁹ 하지만 이러한 의미론적인 유추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부적합한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사장 문헌의 제사 분류법에 따르면, 불에 태운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화제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향의 경우가 그렇다(출 30:1-10; 40:27). 제물 중 일정 부분이 불에 태워지지 않은 채 전적으로 제사장에게 할당된다(특히 진설병의 경우, 레 24:5-9). 그리고 제물 전체를 태우는 속죄제(זָבַח־עֹלָה)³⁰ 역

28 C. Westermann, *Genesis*, Bd.2, BK 1/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674f.

29 J. Hoftijzer, “Das sogenannte Feueropfer”, Hartmann, Benedikt u.a.(Hrsg.), *Hebräische Wortforschung*, FS W. Baumgartner, VTS 16 (Leiden: Brill, 1967), 114-134;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70.

30 ‘속죄제’의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정희경, “Kipper 행위’ 개념을 통해 본 속죄제(זָבַח־עֹלָה)의 이중적 기능연구에 대한 구조비평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9집 (2016년 3월), 10-37; B. A.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시 명시적으로 ‘화제’라고 명명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레 4:1-12; 8:14-17; 23:19-21; 민 28:15; 29:16, 38). 레위기 4장 35절과 5장 11-13절은 속죄제와 화제의 특별한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속죄 제물에 속한 모든 기름 부분이나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는 ‘야웨의 화제물 위에서’(עַל אֲשֵׁי יְהוָה) 불살라져야 한다. 속죄제와 화제는 동일한 장소에서 드러지지만, 서로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화제를 위한 제물은 ‘번제물 위에서’(עַל-הָעֹלָה) 불살라져야 한다(레 3:5). 그러므로 화제는 직접적으로 신에게 할당되어 번제단에서 태워지거나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제물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번제가 ‘화제’(אֲשֵׁי)로 명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출 29:18, 41; 레 1:9, 13, 17; 8:21; 23:13, 18; 민 28:3, 6, 8, 13, 19; 29:13). 레위기 2장은 제사장이 소제, 즉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찢은 곡식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제단 위에서 불태운 것을 ‘화제’라고 명명했다(레 2:2, 9, 11, 16). 소제물 중에서 남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는데,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קִדְּוָה טָהוֹר)으로 간주되었다(레 2:3, 10). 이러한 제물의 등급화는 정결 의식을 거친 제사장들만 — 제사장의 부인이나 자녀, 혹은 성전의 종들은 허락되지 않고 — 성전의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허락하였

Lord, SJLA 5 (Leiden: Brill, 1974), 103-108; J. Milgrom, “Sin 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 (1971), 237-239; A. Marx, “Sacrifice pour les péchés ou rite de passage? Quelques réflexions que la fonction du אֲשֵׁי”, *RB* 6 (1989), 27-48과 N. Zohar, “Repentance and Purification: The Significance and Semantics of אֲשֵׁי in the Pentateuch”, *JBL* 107 (1988), 609-618; G. Gerleman, “Die Wurzel *kpr* im Hebräischen”,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Heidelberg: Lambert Schneider, 1980), 11-23;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의 키페르(Kipper) 의미의 연구: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집 (2005년 12월), 31-51; 김덕중, 『거룩: 성소와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킹덤북스, 2018), 61-62.

다. 에스겔 42장 13절은 야웨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은 지정된 거룩한 방에서만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사장이 드러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완전히 받으신 것이라는 상징적 행동과 관련된다.³¹

그러나 다른 희생제에 비해 열등한 거룩성을 지니고 있으며 희생 제사의 순서에서 보통은 마지막에 드러지는 화목제³²(זֶבַח הַשְּׁלָמִים)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לֶחֶם) 일부(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³³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³⁴ 등)을 꺼내 그것을 제단의 번제물 위에서 태우고 야웨에게 ‘화제’로 드렸다(레 3:3-5, 9, 11, 14, 16; 7:25, 30; 10:15; 22:22). 동물의 생명을 위한 주요 부위들은 야웨에게 속한다는 일종의 신앙고백이다.³⁵ 레위기 7장 35절은 제사장 몫을 ‘야웨의 화제물’(מִזְבֵּחַ יְהוָה)이라고 명하였다. 제사장은 야웨의 기름 받은 종으로 제단에 드러진 제물의 지정받은 부분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진설병(레 24:7, 9), 속건제(עֲשָׂא) 중 불태워야 하는 기름 부분(레 7:5), 그리고 처음 태어난 소와 양과 염소(민 18:17) 역시 화제에 속한다(민 18:17). 제사장 문헌에 속한 축제력은 화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화제는 야웨 절기에 드러야 하는 제물들을 요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레 23:8, 25, 27, 36, 37; 민 28:2),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독특하게 번제를 지칭하기도

31 F. D. Kidner, "Sacrifice-Metaphors and Meaning", *TynBul* 33 (1982), 119-136.

32 R. Rendtorff, *Studien*, 119-168은 '제바흐 쉘라뫼'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하면서 이 단어에는 원래 3개의 구별된 희생제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3 콩팥(כִּלְיָיִם)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양심과 마음(시 16:7; 73:21; 렘 11:20; 17:10)으로 간주되었다.

34 꼬리 달린 간엽(עֵלֶּה לְכֶבֶד, עֵלֶּה לְכֶבֶד, 肝葉, lobus caudatus)을 가리킨다. 탈무드는 '간의 손가락'으로 번역하고 있다: L. Rost, "Der Leberlappen", *ZAW* 79 (1967), 35-41.

35 R. S. Hendel, "Sacrifice as a Cultural System: The Ritual Symbolism of Exodus 24:3-8", *ZAW* 101 (1989), 384.

한다(레 23:13, 18; 민 28:3, 6, 8, 13, 19, 24; 29:6, 13, 36).

‘화제’는 제사장 문헌에서 약간 변형되거나 각인된 표현으로 27번 언급되었다.³⁶ 그 외에도 ‘야웨에게 드리는 화제’(הַחֹטֵאֵת לַיהוָה)라는 표현은 19번 등장하고 있고³⁷, 특별하게 복수연계형과 결합된 표현인 ‘야웨의 화제들’(הַחֹטֵאֵת לַיהוָה)은 14번 언급되고 있다.³⁸ ‘야웨에게’(לַיהוָה)와 ‘화제’(הַחֹטֵאֵת)가 같은 절 안에는 분리되어 등장하지만, 서로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레 22:22; 민 28:3, 19). 여러 형식 속에 들어 있는 ‘향기로운 냄새’와 ‘화제’라는 두 요소의 관계에 대해 렌트로프(R. Rendtorff)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향기로운 냄새는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착했는가의 생각을 담고 있고, 화제는 철저히 제물을 드리는 인간 편에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표현은 인간이 드린 제물은 반드시 신에 의해 용납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함축하고 있다.”³⁹

‘화제’(הַחֹטֵאֵת)라는 단어는 제사와 관련된 전문용어인 ‘향기로운 냄새’(רִיחַ־נִיחֹחַ)와 연결되어 등장하는데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는 상당히 밀접하게 결합된 신인동감론적 표현(Anthropopathism)에 속하며, 신이 드러진 제물의 냄새를 맡고 흡족해한다는 고대적 표상에 해당한다(창 8:21).⁴⁰ 이 결합에서 ‘향기로운’

36 ‘야웨에게 향기로운 냄새 화제’(הַחֹטֵאֵת לַיהוָה, 레 1:9, 13, 17; 2:2, 9; 3:5; 23:18; 민 15:10, 13, 14; 28:8, 24; 29:13, 36), ‘향기로운 냄새 야웨에게 드리는 화제’(הַחֹטֵאֵת לַיהוָה הַחֹטֵאֵת לַיהוָה, 출 29:18, 41; 레 8:21, 28; 민 28:6, 13; 29:6), ‘야웨 앞에 향기로운 냄새 야웨에게 드리는 화제’(출 29:25; 레 3:16; 23:13; 민 18:7; 28:2).

37 출 30:20; 레 2:11, 16; 3:3, 9, 11, 14; 7:5, 25; 22:27; 23:8, 25, 27, 36, 37; 24:7; 민 15:3, 25.

38 레 2:3, 10; 4:35; 5:12; 6:10, 11; 7:30, 35; 10:12, 13; 21:6, 21; 24:9; 민 28:1; 신 18:1; 수 13:14.

39 R. Rendtorff, *Leviticus*, 68.

40 J. Sturdy, *Numbers*, 109.

은 ‘만족하다, 기쁘다, 안심하다, 진정시키다’로 번역할 수 있고,⁴¹ ‘냄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지각, 즉 ‘향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향기로운 냄새’의 제의적 이해는 창세기 8장 21절의 ‘향기’(חַיִּימוֹן־רִיחַ, 향기로운 냄새)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노아는 대홍수 후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야웨가 그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를 받았다. 이 구절은 야웨가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를 ‘흡향하셨다’(רִיחַ)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종의 제의 기술적인 어법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명료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적합한 예는 다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충동시키는 이가 야웨이면 그에게 제물(חֲבִיטָה)을 드려 냄새를 받으시도록(חֲרַחֵם)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삼상 26:19). 물론 인간의 제의적 행동이 야웨의 거절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야웨는 번제나 소제나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받지 않으시고(암 5:22), 향기로운 냄새를 흡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레 26:31). ‘향기로운 냄새’는 예언자들의 구원선포에도 등장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חֲרַחֵם יְיָ אֱלֹהֵינוּ אֶתְכֶם)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겔 20:41). 여기서도 ‘향기나는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사실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위기 2장 11-12절은 누룩과 꿀을 ‘화제’나 ‘향기로운 냄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념이 분리되지 않고 “향기로운 화제”(חֲבִיטָה־רִיחַ אֱלֹהֵי)라는 단어를 통해 이중적인 결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민 15:10, 13, 14; 28:2, 6, 8, 24;

41 P. A. H. de Boer, “An Aspect of Sacrifice”, *Studies in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VTS 23 (1972), 27-47.

29:6, 13, 36). 레위기 3장 5, 16절에서도 ‘화제’와 ‘향기로운 냄새’는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레위기 3장 11절은 ‘화제’만 언급되었고,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면에 레위기 17장 6절에서는 ‘화제’가 생략되고, ‘향기로운 냄새’만 언급되었다.

(3) 화제와 서원의 관계

학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화제’(תִּזְבֹּחַ)가 우가릿의 단어 ‘itt와 관련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² 이 단어가 등장하는 우가릿 문헌을 보면 항상 어근 ndr(서원)라는 단어에 동반되고 있는데,⁴³ ‘itt는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신에게 드리는 음식 예물/선물(food gift)이다. 레위기 21장 6절 역시 화제를 ‘하나님의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물을 야웨에게 드리는 음식으로 생각했던 고대인들의 제의 관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수기 15장 1-16절에서도 화제는 우가릿의 문헌에서처럼 서원(נִזְבָּח/נִזְבָּח)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 15:3, 8).⁴⁴ 민수기 15장 3절은 개인적으로 화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동기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서원을 갚기 위함, 2) 자유로운 헌물(낙헌제), 3) 정해진 절기. 카이저(O. Kaiser)는 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원은 어떤 정해진 경우에 축제적인 방식으로 신을 향해 드리는 약속인데, 정해진 댓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행

42 J. Hofstijzer, “Feuerofer”, 133; J. Milgrom, *Leviticus 1-16*, 162.

43 C. H. Gordon, *Ugaritic Textbook*, AnBib 38 (Rom: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65), 117.

44 A. H. McNeile, *The Book of Numb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80은 3절과 8절의 ‘서원을 갚는 제사’를 화목제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받아들일 특별한 근거는 없다.

위를 도전적으로 촉구하는 종교적 행위이다.”⁴⁵

서원과 관련된 보도들(창 28:20-22; 민 21:1-3; 사 11:30-40; 삼상 1:11; 삼하 15:7-12)에 근거하여 서원의 기본요소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다. 서원을 제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보도들은 언제나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קָרָא)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창 28:20a; 민 21:2a; 사 11:30a; 삼상 1:11a; 삼하 15:8a). 서원은 원칙적으로 두 개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희망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서원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주는 일종의 과제이다(창 28:20b-21a; 민 21:2ba; 사 11:30b; 삼상 1:11aa; 삼하 15:8ba). 다른 하나는 서원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수행하겠다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다짐이며 약속이다(창 28:22b; 민 21:2b; 사 11:31; 삼상 1:11b; 삼하 15:8b).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환호가 서원을 시작하는 맨 앞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삼상 1:11aa), 대부분의 서원 보도에서는 서론적인 도입문을 통해 생략되거나 긴 탄원 기도의 형식 안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서원을 드리는 여러 종류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긴급한 군사적인 위협(민 21:1; 사 11:30-40)이나 걱정 가득한 위험스러운 여행(창 28:20-22; 삼하 15:7-12) 혹은 아들 출생에 대한 소원(삼상 1:11, 참고. 잠 31:2), 바다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욘 1:16; 2:9)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러 시편들을 통해 서원의 동기들이 보충될 수 있는데, 개인적 관계로 발생한 악한 무리 혹은 원수들도 생존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의 제공자들이다(시 22:16; 56:2; 61:4). 시편 50편 14-15절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한다.

45 O. Kaiser, Art. “קָרָא”, *ThWAT* 5 (1986), 263.

- 14절 감사로(תורת)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נדר)을 갚으며(אָפֵשׁ)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 개인 감사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시 22:25; 56:12; 66:13; 116:14, 18; 욥 2:9),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시 22:24; 65:2; 66:19; 116:1; 욥 2:2). 시편 56편 12절과 116편 17-19절은 서원의 성취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보통은 희생제(חֹבֵט) 내지는 감사제(תּוֹרַת חֹבֵט) 혹은 화목제(זֶבַח-שְׁלָמִים)를 드렸다. 어떤 경우에는 번제가 아웨게 드리는 인간의 보답으로써의 서원 제물이기도 했다(레 22:18; 민 15:3; 29:39; 삿 11:30f; 시 66:13). 번제의 경우 제사를 드리는 자는 불에 태운 동물 전부를 아웨에게 드렸기 때문에 다른 희생 제사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제사로 간주될 수 있었다. 서원 제물은 당연히 성소와 성전에서, 포로 후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드려졌다(시 116:19). 서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친척이나 초대받은 손님들 혹은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거대한 공동식사가 있었다(시 22:25; 116:14, 18; 참고. 삼하 15:11f.).

(4) 낙헌제

‘낙헌제’(חֲבֻטָּה, Freewill offering)는 즐겁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유사하지만, 축복을 받은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자원하다’(חֲבָטָה)라는 동사는 의도의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선물이나 자발적인 결정을 나타낼 때 주

로 사용되고 있다. 민수기 15장 3절의 ‘낙헌제’는 제의적인 관계성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발적인 제물’, 즉 규칙적인 제사의식과 무관한 개인적인 제사 행위와 관련된다. 낙헌제 역시 번제(레 22:18; 민 15:3)나 희생제(레 7:16) 내지는 화목제(레 22:21; 민 29:39)의 형식으로 드러졌다. 이런 종류의 제물들은 순례 절기나 다른 축제 절기 때에 아마도 매년 성소와 성전에서 드러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레 23:38; 민 29:39). 자발적인 제물을 드리는 동기에 대해 구약성서 본문이 침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원 제물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악으로부터의 보호, 질병에서 고침 받음, 환난에서 건지심, 원수에 대한 보응 등)를 경험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다(시 54:7). 제사 율법적인 본문에 따르면, 서원 제물(קָרְבָּן)과 자원 제물(קָרְבָּן)은 분명히 사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동기를 설명하는데 불변의 이중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레 7:16; 22:18, 21; 23:38; 민 15:3; 29:39; 신 12:6, 17). 그렇지만 레위기 22장 23절에 근거하여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데,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자원 제물로는 사용해도 무방하나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는 점이다. 문자적인 의미를 따르면, 자원 제물은 소나 양의 자유로운 부위를 드리는 행위와 관련되며 자발적인 행동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원 제물은 서원 제물과는 달리 제의와 관련된 관리들의 엄격한 통제를 허락하지 않지만, 서원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적합성과 율법의 준수 문제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야웨에게 입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언약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신 23:22-24).

3. ‘타국인’(גֵּר)의 제사 참여 문제

제사에 관한 규정은 내국인이나 타국인이나 동일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상세한 진술에서 절정에 이른다(민 15:13-16). 여기서 타국인은 비이스라엘 태생이지만, 이스라엘에 이주하여 영주하면서 제의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킨다.⁴⁶

-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 15절 회중⁴⁷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⁴⁸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본문이 길고 상세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증거이다. 분명하고도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은 타국인도 야웨에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타국인의 제사 참여는 왜 중요하다는 것인가? 13절

46 M. Noth, *Numeri*, 16.

47 70인역은 ‘회중’(לְעַמִּי)에 κύριώ(קַיְיָ)를 추가하고 있다. Th. Staubli, *Die Bücher Leviticus, Numeri*, NSK-AT 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6), 259는 15절의 ‘회중’을 29a절의 ‘이스라엘 자손’(בְּנֵי יִשְׂרָאֵ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이외는 달리 J. A. Paterson, *The Book of Numbers* (Leipzig: Hinrichs'sche, 1900), 50은 ‘회중’을 일종의 주석이라고 생각한다.

48 70인역과 불가타는 14a절과 16b절에서처럼 ‘너희 중에’(בְּתוֹכְכֶם)를 추가하고 있다.

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제사법의 일반 규정들(2b-12절)과 내국인과 타국인의 동일한 법적 의무(14-16절)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3절은 앞에 언급된 핵심적인 구절들(4f, 9절)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3인칭 단수 형태로 작성되어 있고, 2b-12절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끝을 맺고 있다. 13절은 ‘타국인’과 항상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토 소생’(מְאֲרָמִים)이라는 개념의 소개와 화제를 ‘규정대로 준수하라’(וְשָׁמְרָה כְּכָל)는 강력한 요청을 통해 제사 의사가 있는 타국인을 위한 권고 범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타국인을 위한 결의론적인 제사 규정(14절)과 온 회중에게 적용되는 제사 규정과 관련된 지시사항(15-16절)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13-15절을 한 절씩 살펴보면, 각 절의 처음에는 강조하려는 인적 범위가 위치하고 있다: 13절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 14절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15절은 ‘회중’. 마지막 16절은 이 모든 인적 범위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들을 ‘법도/토라’(תּוֹרָה)로 규정하면서 그 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13절은 14a절, 14b절은 15bβ절, 15aβ절은 16절과 서로 내용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레이니”(15aβ절)와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레이니라”(16절)는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주격 단어인 ‘율레’(לְיָדְךָ)가 ‘법도’(תּוֹרָה)와 ‘규례’(מִשְׁפָּטִים)로 바뀌었을 뿐이다. 14b절과 15bβ절은 서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함으로써(.....כָּל/.....כָּל) 타국인과 본토인을 동일시하고 야웨 앞에서 향기로운 화제를 똑같은 규칙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3절과 14a절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אֲשֶׁר יִרְחַח לְיְהוָה)라는 특징적인 어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 15bα절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에 근거하여 스타우블리(Th. Staubli)는 13-16절은 다음과 같은 순환형 구조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⁴⁹

A	13절	본토인이 야웨에게 드려야 하는 향기로운 화제
A ¹	14a절	타국인이 야웨에게 드려야 하는 향기로운 화제
B	14b절	본토인과 타국인은 동일하게 야웨에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함
C	15a절	회중(본토인과 타국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
X	15bα절	세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규례
B ¹	15bβ절	본토인과 타국인이 야웨 앞에서 동일한 요구를 받음
C ¹	16절	본토인과 타국인을 위한 법도와 규례

13절은 ‘본토인’(אֲזָרָה)을 다른 제사장 문헌에서처럼 율법의 수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는 본토인을 위한 고유한 화제에 관한 규정임을 강조한다. 14절에 가서야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화제에 관한 율법규정이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설명되고 있다.⁵⁰ 타국인을 위한 화제 규정은 미래에 타국인과 함께 살게 될 경우를 설명하는 다른 구절에서처럼(출 12:48; 레 19:33; 민 9:14) 조건적인 키-문장(כִּי)으로 시작한다. ‘거류하다’(גָּר)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בְּ)를 동반하는데, 14절에서는 이와는 달리 전치사에 남성 2인칭 복수형 어미가 결합된 단어(אֲזָרָה)가 사용됨으로 타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법은 레위기 19장 34절, 민수기 15장 16절, 에스겔

49 Th. Staubli, *Leviticus, Numeri*, 259.

50 본토인(אֲזָרָה)과 타국인(גֵּ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중 형식은 레위기 17장 12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에게는 문학적비평적인 잣대로 제시되기도 한다. 즉 민수기 15장 14절은 본토인과 타국인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형적인, 후기 제사장적 보충 구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aperbacks, 1985), 191f.

47장 23절에서도 사용되었다. 14절의 조건절은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도입부에 속하는 2b-3절의 키-문장(כִּ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율법 부분(4-16절)은 광야 유랑의 실제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 되며, 팔레스틴에서의 정착 생활을 예측하도록 이끌어 준다.

선택적 관계문장으로 구성된 14aβ절의 ‘혹은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의 의미에 대해서 밀그롬(J. Milgrom)은 ‘대대로’(לְדֹרֹתֵיכֶם)를 제사 규정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와 관련시키고, 타국인은 ‘노크리’(נֹכְרִי)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¹ 한편 세바스(H. Seebass)는 70인역의 이해를 받아들여 ‘대대로’를 시간 규정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 특별 유형의 외국인 체류 기간과 관련시키고 특별 유형의 외국인으로 ‘토샤브’(תּוֹשָׁב)를 생각하였다.⁵² 그러나 제사장 문헌이 사용한 언어적 관습은 이러한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토샤브’도 ‘노크리’도 이 문맥의 관련성 속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오직 ‘게르’(גֵּר)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본문이 다른 외국인 그룹을 염두에 두었다면, 다른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을 것이다. 14절의 ‘너희 중에 있는’(בְּתוֹכְכֶם)은 ‘게르’를 위한 공간적인 성격 규정이고, ‘대대로’(לְדֹרֹתֵיכֶם)는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한 시간적인 성격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후기 제사장적 편집자는 여기서 이중적인 대상을 겨냥하면서 타국인의 미래 세대의 법적 권리를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타국인과 미래에 살게 될 타국인이 아웨에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 될 때는 본토인들과 똑같이 드

51 J. Milgrom, *Numbers*, 120.

52 H. Seebass, *Numeri*, 140.

53 B. Levine, *Numbers*, 387.

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내국인이나 타국인이 야웨에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것은 “같은 율례”(אֲחַת וְנִמְשָׁפֵט אֹרְחָי)에 속한다. 그래서 이 율례는 “같은 법도이며 같은 규례”(תּוֹרָה אֲחַת וְנִמְשָׁפֵט אֹרְחָי)가 되는 것이다(민 15:15).

민수기 15장 15b절의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כְּכֹכֶם כִּינֹר יְהוָה לִפְנֵי יְהוָה)와 같은 키-문장(כִּי)은 고대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언어 관습으로서 두 개의 다른 인간 그룹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소개하고 있다. 창세기 18장 25aβ절에서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자격의 두 그룹이 관련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그룹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 사야 24장 2aα절은 심판의 날에는 사회적 신분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레위기 7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속건제(אֲשָׁף)의 규례⁵⁵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장소,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속건 제물의 몫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7a절은 이러한 속건제의 규례가 속죄제의 규례와 같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7b절은 드러진 제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4 B. A. Levine,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Commentary”, *Biblica* 74.2 (1993), 280-285; J.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393.

55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P. P. Saydon, “Sin-Offering and Trespass-Offering”, *CBQ* 8 (1966), 393-398; J. Milgrom, *Cult and Conscience: The Asham and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Leiden: Brill, 1976), 104-127; J. H. Hayes, “Restitution, Forgiveness, and the Victim in Old Testament Law”, *Trinity University Studies in Religion* 11 (1982), 1-23;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핫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집 (2015년), 7-25; 한동구, “속건제(Schuldopfer)”, 『구약논단』 2집 (1996년 12월), 105-130; 서신혜/이선희, “성경번역어 ‘속건제’의 전근대 시기 함의 고찰: 레위기 5:14-6:7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5집 (2020년 3월), 150-173.

민수기 15장 16절은 레위기 7장 7a절의 ‘...כִּי...כִּי’ 문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토인과 타국인의 법적인 동등성을 두 번에 걸쳐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기서 전반절은 본토인과 타국인의 인종적 동등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그룹은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와 타국인에게 될 것이다’(וְהָיָה לָכֶם וְלֹאֲנִי)라는 문장 형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반면 후반절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의 법적 수행의 동등성을 전하고 있는데, 수사 ‘하나’(אֶחָד)를 사용함으로써 본토인과 타국인에게 적용되는 규례와 법도의 동일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 민수기 15장 16a절의 ‘법도/토라’(תּוֹרָה)와 ‘규례/판결’(מִשְׁפָּטִים)

‘법도/토라’는 제사장 문서에서 27번 언급되었다.⁵⁶ 이 구절들은 연대적으로 볼 때 비교적 늦은 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토라’는 제사장 문서의 기본 층에는 발견되지 않는다.⁵⁷ 제사장 문헌에서 ‘토라’는 의미상 제의적인 율법 수여에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제사장의 제의적 봉사를 위한 야웨의 명령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장이 ‘토라’를 공포(公布)하는 일, 즉 ‘훈령’의 선포는 주로 포로 후기에 발생한 것이다. 일반 백성은 제사장에게 ‘토라’에 대해 묻고, 제사장은 야웨의 위임을 받아 구두로 질문의 내용을 ‘토라’에 근거해 선포하였다(학 2:11; 말 2:7). 제사장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침범받을 수 없는 신적인 고유영역(聖)과 인간의 일상의 영역(俗)의 차이를 보존하는 일이다(레 10:10; 14:57; 겔 22:26; 44:23).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교육해야

56 출 12:49; 레 6:2, 7, 18; 7:1, 7, 11; 11:46; 12:7; 13:59; 14:2, 32, 54, 57; 15:32; 26:46; 민 5:29, 30; 6:13, 21; 15:16, 29; 19:2, 14; 31:21.

57 F. Garcia Lopez, Art. “תּוֹרָה”, *ThWAT* 8 (1995), 605.

한다. “특히 제의의 기록성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제물이 용납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제의자는 상실된 제의적 조건을 회복한 후에야 제의적 기록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⁵⁸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 15장 16a절의 ‘하나의 토라’(תּוֹרָה אֶחָד)라는 단어는 분명히 ‘토라’의 일반적 유용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⁹ 이 단어는 제사장 문서와 에스겔서에서 항상 어떤 구체적인 제의적 율법을 취급하고 있다.

민수기 15장 29절은 ‘토라’의 적용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부지중에 행한 범죄를 적용하는 ‘법이 동일하다’(תּוֹרָה אֶחָד)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은 43aβ절과 함께 율월절 규정(43b-48절)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본토인과 타국인이 하나로 묶여 있는 제사장적인 율법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레위기 7장 7절은 이스라엘 사람과 타국인에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의 토라’(תּוֹרָה אֶחָד)라고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토라’는 결국 하나의 제의 규정 모음집이거나 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되고 있다. 물론 문장론적 구조와 문맥상의 위치로 볼 때 레위기 7장 7a절과 민수기 15장 16, 29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레위기 7장 7a절은 개별적인 규정의 정체성을 명사 문장을 통해 하나의 사실로 확정하고 있는 반면, 민수기 15장 16, 29절은 단어의 형태변화를 가진 동사 문장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7a절은 속건제의 규례라는 주제 안에서 다루어진 반면, 민수기 15장 16, 29절은 소제와 전제에 관한 규정과 관련되고 있다. 헨취케(R. Hentschke)는 법적인 용어인

58 J. Begrich, “Die priestliche Tora”, in ders.,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 21, München 1964, 232-260(= J. Hempel u. a. (Hrsg.), *Werden und Wesen des Alten Testaments*, BZAW 66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36), 63-88), 241.

59 G. Liedke and C. Petersen, Art. “תּוֹרָה”, *THAT* 2 (1973), 1032-1043.

‘토라’(תּוֹרָה)의 중요성을 ‘규례’(הֻכְלָה)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토라는 제사장이 부분적으로는 신의 이름으로, 즉 직접적인 신의 연설의 형식으로,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구두로 전달한 제사-의식적인 질문들의 결과와 그와 관련된 훈령을 가리킨다.”⁶⁰ 그러므로 ‘문서로 편찬된 토라’를 ‘규례’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규례/판결’(הֻכְלָה)⁶¹은 제사장 문서에서 37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성결법전’(레 17-26장)⁶²과 이차적인 편집 구절에 등장하고 있다. 이 단어는 ‘율례/규례’와 ‘법도/토라’와는 달리 인간들의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영역에 집중되어 언급되는 특징이 있다.⁶³ 그 외에도 ‘규례/판결’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각인된 어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율법, 명령, 규정, 법규’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성결법전의 제의적-윤리적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율례/규례’와 ‘규례/판결’을 동반하는 동사로는 ‘지키다’(שָׁמַר)와 ‘행하다’(עָשָׂה)가 있다.⁶⁴ 유사한 표현으로는 율례를 ‘따르다’(הִלֵּךְ)가 있다.⁶⁵ 송사와 관련해서는 규례대로 ‘재판하라’(שָׁפַט)고 권면하고 있다(겔 44:24).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מָאָס) ‘싫어하는’(גָּעַ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와 형벌을

60 R. Hentschke, *Satzung*, 72.

61 G. Liedke, *Gestalt und Beziehung*, 97.

62 ‘성결법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A. Klostermann, “Beiträge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hK* 38 (1877), 401-445;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집 (2000), 59-82.

63 B. Johnson, Art. “הֻכְלָה”, *ThWAT* 5 (1986), 93-107.

64 레 18:5, 26; 19:37; 20:22; 25:18; 참고. 신 8:11; 30:16; 겔 18:9, 19, 21; 20:19, 21; 37:24; 44:24.

65 왕상 6:12; 겔 5:6, 7; 11:20; 18:9, 17; 20:13, 16, 19, 21; 37:24.

받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레 26:15, 43; 참고. 겔 5:6; 20:13, 16, 24).

제사장 문헌에서 두 법적 용어인 ‘율례/규례’와 ‘법도/토라’의 관계는 민수기 27장 1-11절과 35장 16-29절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슬로보핫의 딸들(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아버지의 기업 상속과 관련된 일을 문의하였는데, 모세는 그 문제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야웨 앞에서 ‘사연’(אֲשֶׁר־נָשְׂאָה)을 고하였다(민 27:5). 모세는 야웨로부터 ‘판결의 규례’(אֲשֶׁר־נִקְרָא)를 받아 백성에게 공포하였는데(민 27:11),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상속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상속 순서를 요약하고 있는 ‘판결의 규례’는 사실상 동의어 반복에 속하는 문법에 속한다(참고. 민 35:29). 여기서 ‘판결’과 ‘규례’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남았을 때 죽은 부친의 기업 상속의 문제를 판단해주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기업 상속의 문제와 이익의 조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판결의 규례’에 기초한 율법 공동체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아들이 없이 딸만 남아 있는 경우의 기업 상속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지만, 판단의 법적 토대를 신적인 권위 아래 두고 해결하고 있다.

2) 본토인과 타국인의 법적 평등성

민수기 15장 16절은 ‘법도/토라’와 ‘규례/판결’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15절에 이어서 본토인과 타국인의 법적 평등성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과연 불필요한 추가 정보인가 아니면 편집자의 새로운 관점을 함축하고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15절의 ‘율례/규례’와 16절의 ‘법도/토라’는 민수기 19장 2절과 31장 21절에서

www.kci.go.kr

처럼 한 쌍의 동의어적 개념에 속하며, 이 용법은 ‘법도/토라’(민 19:14) 과 ‘영원한 율례’(עוֹלָם תּוֹרָה)(민 19:10, 21)를 결합시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민수기 31장 21절을 참조하면 이 가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돌아온 군인들에게 명령한 ‘율법’(הַחֻמֹּת תּוֹרָה)은 이미 야웨를 통해 — 일종의 배타적인 매개체로써 — 모세에게 전달된 신적인 훈령이다. 여기서 ‘율례/규례’와 ‘법도/토라’는 민수기 27장 11절과 35장 29절의 ‘판결의 율례’(שֹׁפְטֵי תּוֹרָה)처럼 동의어 반복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제사장적인 토라(정결의식의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사장적인 판결의 원칙적인 성격은 명시적으로 신에게 유보된 종교적 영역에서의 신적인 합법성을 요구한다.⁶⁷ 민수기 15장 16절에 언급된 ‘법도/토라’와 ‘규례/판결’의 이중적 법률 개념은 예루살렘 상급 재판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구절과 관련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신 17:11).

민수기 15장 15-16절에는 모두 세 가지의 특별한 율법 개념이 단수로 등장하고 있다: ‘율례/규례’(תּוֹרָה)-‘법도/토라’(תּוֹרָה)-‘규례/판결’(שֹׁפְטֵי תּוֹרָה).⁶⁸ 이 3개의 개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제사장적 법규와 관련된다고 보아야 한다. 16절은 오히려 위에서 언급된 제사 법규들이 타국인과 본토인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권위 있는 법령의 유래를 설명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6절은 15절에 대한 불필요한 잉여 구절이 아니라, 사용한 두 개의 개념들을 통해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66 B. A. Levine, *Numbers*, AncB 4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3), 393.

67 R. Rendtorff, *Die Gesetze in der Priesterschrift: eine gat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73f.

68 참고. 레위기 26장 46절;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하 17장 34절.

는 것이다: 15절의 ‘율례/규례’는 권위 있는 공포에 근거하여 법규와 청취인들 사이의 관계 그 이상을 말하고자 한다면, 16절의 ‘법도/토라’와 ‘규례/판결’은 오히려 신적인 유래와 그 결과로 산출되는 문체론적 형식을 개념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15장 1-16절이 왜 현재의 위치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본문은 민수기 13-14장에서 발생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대응이며, 다른 한편 민수기 15장은 고라가 주도하여 일으킨 비극적인 반역 사건(민 16장)을 준비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⁶⁹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내린 불신앙적 보고이며, 민수기 14장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서는 이스라엘의 자만스러운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후대의 제사장적 편집자는 13-14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부각하고,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고라에 의한 반역사건을 준비하고자 하였다.⁷⁰

편집자는 민수기 15장 1-16절에서 그 대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미래는 제사법규에 대한 준수 여부에

69 왕대일, 『민수기』, 367.

70 L. R. Bailey, *Leviticus-Number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473-478.

달려 있다는 것이다. 광야에서의 불순종은 심판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순종은 희망을 보증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이 전하는 야웨에게 드리는 희생제물에 관한 규정은 생명에 관한 규정인 셈이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수기 15장 2절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는 앞에서 행했던 이스라엘 최악의 성격을 전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대한 재요구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본토인과 타국인이 동일하게 제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과 함께 그 땅의 열매들과 포도주, 기름을 야웨에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덕중, 『거룩: 성소와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킹덤북스, 2018).
- 김재구, “민수기의 거시구조에 대한 재조명”,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41-73.
-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의 키페르(Kipper) 의미의 연구: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집 (2005년 12월), 31-51.
- _____,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헛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집 (2015), 7-25.
- 서신혜/이선희, “성경번역어 ‘속건제’의 전근대 시기 함의 고찰: 레위기 5:14-6:7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5집 (2020년 3월), 150-173.
-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우택주,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164-194.
- 이희학, 『구약성서와 조상숭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 정중호, 『민수기 II』, 한국구약학총서 5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 정희경, “Kipper 행위’ 개념을 통해 본 속죄제(כִּפּוּרִים)의 이중적 기능연구에 대한 구조비평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9집 (2016년 3월), 10-37.
-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집 (2000), 59-82.
- 한동구, “속건제(Schuldopfer)”, 『구약논단』 2집 (1996년 12월), 105-130.
- Bailey, L. R., *Leviticus-Number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 Begrich, J., “Die priestliche Tora”, in ders.,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 21, München 1964, 232-60(= J. Hempel u. a.(Hrsg.), *Werden und Wesen des Alten Testaments*, BZAW 66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36), 63-88).
- Boer, P. A. H. de, “An Aspect of Sacrifice”, *Studies in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VTS 23 (1972), 27-47.
- Budd, P. J., *Numbers*, WBC 5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 Caquot, A., “בִּשָׁח, d'bhsh”, *TDOT* 3, 128-131.
- Dohmen, C., Art. “זִבְחֵי”, *ThWAT* 5 (1986), 488-493.
- Fabry, H. -J., and Weinfeld, M., Art. “מִנְחָה”, *ThWAT* 4 (1984), 987-1001.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aperbacks, 1985).
- Gerleman, G., “Die Wurzel *kpr* im Hebräischen”,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Heidelberg: Lambert Schneider, 1980), 11-23.
- Gordon, C. H., *Ugaritic Textbook*, AnBib 38 (Rom: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65).
- Gray, G. B., *Numbers* (London: T&T Clark, 1912).
- Gray, J.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 Grelot, P., “La Dernière Étape de la Rédaction Sacerdotale”, *VT* 6 (1956), 174-189.
- Grünwald, K., *Exil und Identität. Beschneidung, Passa und Sabbat in der Priesterschrift*, BBB 85 (Frankfurt a. M.: A. Hain, 1992).
- Hartley, J.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Hayes, J. H., “Restitution, Forgiveness, and the Victim in Old Testament Law”, *Trinity University Studies in Religion* 11 (1982), 1-23.

- Hendel, R. S., "Sacrifice as a Cultural System: The Ritual Symbolism of Exodus 24:3-8", *ZAW* 101 (1989), 366-390.
- Hoftijzer, J., "Das sogenannte Feueropfer", Hartmann, Benedikt u.a.(Hrsg.), *Hebräische Wortforschung*, FS W. Baumgartner, VTS 16 (Leiden: Brill, 1967), 114-134.
- Hultgard, A., "The Burnt-Offering in Early Jewish Religion: Sources, Practice and Purpose", T. Linders and G. Nordquist(ed.), *Gifts to the Gods: Proceedings of the Uppsala Symposium 1985*,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Boreas. Uppsala Studies in Ancient Mediterranean and Near Eastern Civilizations 15 (Uppsala: Academiae Upsaliensis, 1987), 133-136.
- Johnson, B., Art. "כֹּזֵפֵיט", *ThWAT* 5 (1986), 93-107.
- Kaiser, O., Art. "נָדָר", *ThWAT* 5 (1986), 261-274.
- Kidner, F. D., "Sacrifice-Metaphors and Meaning", *TynBul* 33 (1982), 119-136.
- Klostermann, A., "Beiträge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hK* 38 (1877), 401-445.
- Koch, K., *Die Priesterschrift von Exodus 25 bis Leviticus 16: Eine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und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FRLANT 7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 Kraus, H. -J., *Psalmen. 1 Teilband: Psalmen 1-59*, BK 15/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Kuenen, A., *A Historico-Critical Enquiry into the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Hexateuch*, P. H. Wickstead(trans.), (London: Macmillan, 1886).
- Levine, B. A., "Comments on Some Technical Terms of the Biblical Cult", *Leshonenu* 30 (1965), 3-11.
- Levine, B. A., *In the Presence of the Lord*, SJLA 5 (Leiden: Brill, 1974).
- _____,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Commentary", *Biblica* 74.2 (1993), 280-285.
- _____, *Numbers*, AncB 4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3).
- Liedke, G. and Petersen, C., Art. "תּוֹרָה", *THAT* 2 (1973), 1032-1043.
- Lopez, F. Garcia, Art. "תּוֹרָה", *ThWAT* 8 (1995), 597-637.
- Marx, A., "Sacrifice pour les péchés ou rite de passage? Quelques réflexions que la fonction du הַטָּאת", *RB* 96 (1989), 27-48.
- McCarthy, D. J., "The Symbolism of Blood and Sacrifice", *JBL* 88 (1969), 166-176.
- McNeile, A. H., *The Book of Numb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1).
- Milgrom, J., "Sin 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 (1971), 237-239.
- _____, *Cult and Conscience: The Asham and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Leiden: Brill, 1976).
- _____,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_____,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Noth, M.,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B. W. Anderson and Englewood Cliffs (trans.), (NJ: Prentice-Hall, 1972).
- _____, *Das 3. Buch Mose. Leviticus*, *A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_____, *Das 4. Buch Mose. Numeri*, *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Olson, D. T.,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 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 *Brown Judaistic Studies* 71 (Brown University, 1985).
- Paterson, J. A., *The Book of Numbers* (Leipzig: Hinrichs'sche, 1900).
- Rendtorff, R., *Die Gesetze in der Priesterschrift: eine gat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 _____, *Leviticus*, *BK* 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2).
- Robinson, G., "The Prohibition of Strange Fire in Ancient Israel. A New Look at the Case of Gathering Wood and Kindling a Fire on the Sabbath", *VT* 28 (1978), 301-317.
- Rost, L., "Der Leberlappen", *ZAW* 79 (1967), 35-41.
- Saydon, P. P., "Sin-Offering and Trespass-Offering", *CBQ* 8 (1966), 393-398.
- Seebass, H., *Numeri*, *BK* IV 2/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 Staubli, Th., *Die Bücher Leviticus, Numeri*, *NSK-AT* 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6).
- Steck, O. H.,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
- Sturdy, J., *Numbers*, *CBC/NE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Vaulx, J. de, *Les Nombres*, CBC/NEB (Paris: J. Gabalda, 1972).
- Vriezen, Th. C., “The Term *Hizza*: Lustration and Consecration”, *OTS* 7 (1950), 201–235.
- Wehham, G. J., *Numbers* (London: Tyndale Press, 1982).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Reimer, 1889).
- Zohar, N., “Repentance and Purification: The Significance and Semantics of **תְּנִיחָה** in the Pentateuch”, *JBL* 107 (1988), 609–618.

검색어

민수기, 소제, 전제, 화제, 낙헌제, 전통사 연구, 타국인

[ABSTRACT]

A Study in Tradition Criticism on the Offerings and the Law for the Foreigners in Numbers

Xiaolin Lee

Mokwon University

Numbers 15:1-16 deals with the new laws concerning the grain offering and drink offering accompanying animal sacrifices. The text is the response of God to the rebellion of Israelites in Numbers 13 and 14. On the other hand, it prepares and interprets the tragic incident of rebellion caused by Korah and his company (Numbers 16). Numbers 13 comprises the unfaithful report given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12 tribes of Israel after spying out the land of Canaan. Numbers 14 contains the narratives of Israel's resentment toward God who led them into the wilderness and God's judgment against them. But it also shows the arrogance of Israelites as they went up to occupy the land of Canaan again.

Later priestly editors emphasized the failure of Israel at the conquest of Canaan in Numbers 13-14 and tried to present the treason by Korah while at the same time asking its readers to question why Israel failed. The editor attempts to provide the answer in Numbers 15 and 16: namely, Israel's future depends on their observance of sacrificial laws (the grain offering, the drink offering, the offering by fire, the free-will offering) which God had instructed them to observe. Priestly writer implies that Israel was put to the judgment for their disobedience in the wilderness but their obedience in the land of Canaan will guarantee hope. Therefore, the

www.kci.go.kr

text shows that the sacrificial laws to YHWH is the regulations of life.

The text puts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srael's constant faith in God's plan to give the land of Canaan to them. Numbers 15:2, "...When you enter the land where you are to live, which I am giving you", presupposes the nature Israel's sins that were committed in the past. At the same time, through God's requesting them again to observe God's laws, the observance of the laws is confirmed as the only condition to inherit the land of Canaan. Therefore, the core message of the text is that the natives and the foreigners must equally observe the sacrificial laws. And together with the foreigners sojourning in the land of Canaan, Israelites must offer the fruits, wine, and oil produced in that land to YHWH.

key words

Numbers, Grain Offering, Drink Offering, Offering by Fire, Freewill Offering, Tradition-Criticism Study, Foreigner

투고일 : 2023년 07월 18일

심사일 : 2023년 08월 07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8월 09일

www.kci.go.kr